

기획
논문

미얀마 ‘봄의 혁명’

땃마도 수호자주의의 파국적 선택에 이르는 서사

박은홍 _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

논문요약

미얀마 군부 땃마도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역사보다도 긴 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부모를 자처한다. 일본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땃마도의 모토는 같은 피, 같은 목소리, 같은 명령에 산다이다. 땃마도의 비타협성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수호자주의(guardianship)’와 무관하지 않다. ‘신식민주의’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 땃마도의 입장은 연방 해체 반대, 국가주권의 공고화이다.

이번 쿠데타는 정치 혼돈은 물론 경제 파국까지 감수하면서 테인 세인 정부 이전 고립 상태의 미얀마로의 회귀를 불사하겠다는 땃마도의 무모한 시도이자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의 포퓰리즘의 도전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수호자주의’가 도덕적, 정치적 자산을 모두 상실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2008년 헌법과 물리적 억압 기구를 동원하여 ‘국가 안의 국가’로서의 계급적 이익을 폭력적으로 ‘수호’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땃마도가 예측하지 못한 내전 상황의 발발이다. 땃마도로서는 파국적 선택을 한 셈이다. 이 글은 1962년 쿠데타 이후 땃마도 수호자주의의 생성, 진화, 변형, 파국적 선택의 궤적(trajectories)을 보여주는 서사(narrative)이다.

■ **주요어:** NLD, 땃마도, 포퓰리즘, 수호자주의, 프레토리안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막 나는 것을 배운 새였습니다. 군부가 이러한 우리의 날개를 꺾었습니다”(시 푼 투, 학생운동가).

1. 서론

버마/미얀마¹⁾가 전체주의적 악몽 국가(totalitarian nightmare state, Mya Maung 1992)로 회귀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2월 1일 10년간의 민주주의 실험이 군부 쿠데타로 요동을 치며 멈춰 섰다. 2011년 3월 테인 세인 전직 장성을 수반으로 하는 유사 민간 통치(quasi-civilian rule)가 군사평의회(junta)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를 대체한 지 10년 만에 다시 군사평의회가 등장한 것이다. 반면 군부와 싸우고 있는 민주 진영은 미얀마를 명실상부한 연방민주주의국가로 혁신하겠다는 선언하고 소수민족반군(EAOs: Ethnic Armed Organizations)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투쟁 방식도 진지전(war of position)에서 기동전(war of maneuver)으로 바뀌고 있다. 청년들은 평화적 방식의 투쟁인 시민 불복종 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의 한계를 느끼고 자위권 차원에서의 무장투쟁 방

1) 땃마도는 8888 민주항쟁 이듬해인 1989년에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었다. 2012년 4월 1일 보궐선거 참여를 민족민주동맹(NLD)이 결정하기까지 민주 진영은 땃마도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버마라는 국명을 고수했다. 이 글에서는 버마와 미얀마를 혼용하겠다.

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시를 떠나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군부와 맞서고 있는 대항기구 미얀마연방의회대표자회의(CRPH: Committee Representing Pyidaungsu Hlutaw)와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²⁾가 선언한 연방국가의 건설과 연방군 창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은 연방군(federal army) 창설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무장조직이다. PDF의 주역인 청년들은 외지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도시로 다시 들어와 군부를 위협하는 무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³⁾ 이를테면 군부 기업으로 알려진 이동통신회사 마이텔(Mytel) 소유의 중개탑들(telecom towers)이 PDF로부터 공격을 당했다(*The Irrawaddy* 2021/09/13). 그동안 미얀마 군부가 우려해 온 도시의 시위자들과 변방의 무장 세력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민주 세력이 조직적으로 폭력적 저항(organized violent revolt)을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MZ 세대로도 불리는 청년 세대가 한때 CDM의 주역이었지만 이제 PDF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들 청년에게 종족(ethnicity)과 같은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⁴⁾ 종족적 차이를 넘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해 군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들은 국가고문이었던 아웅 산 수 치가 로힝야를 거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편으

2) NUG는 30년 전 조직되었던 버마민족연립정부(NCGUB: 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와 같은 해외 망명정부가 아니라 미얀마 영토 안에 지하 정부로 존재하는 대항정부(parallel civilian government)이다.

3) 마웅저 따비에(미얀마 양곤 소재) 대표와의 인터뷰(2021/7/8; 2021/9/8; 2021/11/17).

4) 웨노에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 회원과의 인터뷰(2021/4/21; 2021/6/17; 2021/10/20).

로는 친근한 표현인 ‘아메이’, 즉 엄마로 불리면서 대중들을 수직적으로 동원해 내던 포퓰리즘(populism)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렇듯 미얀마 청년들은 독립 이후 70여 년 동안 미얀마 사회에 축적되어 온 차별과 위계의 문화를 혁파하는 운동에 나섰다. 차별과 위계의 문화 중심에는 미얀마 군부 ‘따마도(Tatmadaw)’가 있었다.

1962년 쿠데타 이후 군은 반(反)식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구호를 동원하면서도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대폭 보장하는 연방주의의 실현은 반대해 왔다. 이들은 식민주의나 제국주의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재하다고 공언하면서 국가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버마족 중심의 내부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를 구조화시켰다(박은홍 2015). 군 지도자들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자임하면서 잔혹하게 통치하던 고대 왕들처럼 버마를 통치하기 시작했다(Myat Maung 1992, 3). 1988년까지 26년 동안 군부의 정당 조직인 버마사회주의 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만이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다.

네윈의 사회주의 정부는 군부가 국가 주권과 안정의 ‘깨닫신’, 즉 수호자(guardian)를 자처하는 프레토리안체제(praetorianism)였다. 그렇지만 이 프레토리안체제는 1950년대에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사회를 완전히 초토화하지는 못해 주기적으로 시민사회의 도전을 받았다. 그것은 쿠데타가 부른 ‘혁명’의 반복이었다.⁵⁾ 2021년 2월 1일 쿠데타

5) ‘혁명’(revolution)이란 사회질서의 변혁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의 전복을 지칭한다

는 ‘봄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종족과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범국민적 저항을 촉발했다. 1962년 군부의 정치 개입 명분이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여당 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AFPFL: 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내부의 극심한 대립과 소수민족, 공산반군과의 내전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면 2021년 2월의 쿠데타는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견고한 내부 응집력(internal cohesion) 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명분이 취약했다. 전례 없이 쿠데타 발생 10개월이 넘도록 반군부진영의 ‘봄의 혁명’은 지속되고 있다. 반군부 진영의 파업으로 행정과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2개월도 채 못 되어 진압되었던 1988년의 8888 민주혁명, 2007년 샤프론 혁명과 대조적이다. 뜻밖대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파국적 선택이다.

영국 식민지 시기 1941년 태국에서 결성된 버마독립군(BIA: Burma Independence Army)을 전신으로 하는 뜻마도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역사보다도 긴 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부모를 자처한다.⁶⁾ 일본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뜻마도의 모토는 “같은 피, 같은 목소리, 같은 명령에 산다”이다. 미얀마 군부통치의 ‘비타협성(intransigence)’(Bünte 2014, 744)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수호자주의(guardianship)’와 무관하지 않다.⁷⁾ 국가안보지상주의(National Security State)(Stepan 1988, 23) 콦

(Miliband 1995, 4).

6) NLD 집권 시기 이전까지 민간 출판물들은 “뜻마도는 국민의 아버지(애파), 국민의 어머니(애미)”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7) 1941년 10월 27일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진 ‘30인 동지’가 방콕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

플렉스를 안고 있는 땃마도의 입장은 연방 해체 반대, 국민연대 해체 반대, 국가 주권의 공고화,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Ebbighausen, 2021).

결국 이번 쿠데타는 정치 혼돈은 물론 경제 파국까지 감수하면서 테인 세인 정부 이전 고립 상태의 미얀마로의 회귀를 불사하겠다는 땃마도의 무모한 시도이다. 땃마도의 ‘수호자주의’가 도덕적, 정치적 자산을 모두 상실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물리적 억압기구와 2008년 헌법을 동원하여 ‘국가 안의 국가’로서의 특권을 ‘수호’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 글은 1962년 쿠데타 이후 프레토리안체제의 수호자주의의 생성, 진화, 변형, 위기, 파국적 선택의 궤적(trajectories)을 보여주는 서사(narrative)이다.

2. 이론적 논의: 프레토리안체제의 수호자주의와 반(反)군부 포퓰리즘

프레토리안체제(praetorianism)는 군의 무력에 의한 지배 체제이면서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면서 특정 정파나 정당을 지지하고 조직의 이익을 유지,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민간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혼돈에 빠진 국가의 주권을 지켜내는 수호자이자 사회적·정치적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다(Wolf and Kane 2010, 171). 프레토리안체제 등장의 계기가 되는 쿠데타

버마독립군(BIA)을 창설했다. ‘30인 동지’가 땃마도의 1세대 지도자들이 되는 셈이다, 이 들 중 1962년 쿠데타의 주역인 네윈이 독립 이후 군총사령관이 되었다(Nay Yan Oo 2020, 32).

(coup)는 대중의 참여가 없는데 이것이 쿠데타를 혁명과 구분 짓는 요소이다. 또 쿠데타는 계획과 준비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만 급작스럽게 실행된다(Kraus 2020, 27). 프레토리안체제는 법적·합리적 성향을 띄기도 하지만 군부 통치를 유일한 정치체제로 보기 때문에 군부가 지배계급으로 성장한다(Tanvir and Arif 2014; Huntington 1968). 군부는 자신들을 위협한 상황에 놓인 국가를 구하고(rescue), 지켜내고(defend), 발전(develop)시키는 주체로 자처한다. 한때 인도네시아 군부는 국방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이른바 이중 기능(*dwifungsi*)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Berger 2004, 46; Montesano, Chong and Prajak 2020). 군부가 ‘국가 안의 국가(state within a state)’로서의 견고한 성을 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토리안체제의 하위 유형으로 군의 직접 통치(direct rule)인 군사정부(military regime)와 군의 간접 통치(indirect rule)인 군부 후견 민주주의(democracy under military tutelage)를 들 수 있다.⁸⁾

군사정부의 수는 1970년대 초 이른바 세 번째 민주화 물결⁹⁾이 시작된 이후 30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최근 연구는 세 번째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민-군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양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8) 군사정부가 온전한 군부 지배(full military rule)라면 군부 후견 민주주의는 부분적 군부 지배(partial military rul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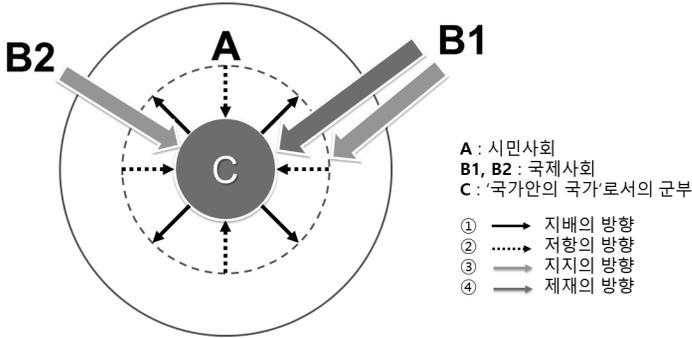
9) 민주화의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긴 시간에 걸쳐, 두 번째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어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째 물결은 1974년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을 계기로 각각 진행되었다(Huntington 1991, 3-26).

있다. 이는 곧 민주화가 순방향(linear process)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üntje 2011, 743).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이룰 수 있는 만능 해법(one-size-fits-all)이나 황금 경로(golden path)는 없다. 다만 점진적 방식(gradual timing)이 중요하다. 지난 과거에 대한 빅뱅(big bang) 방식의 개혁, 처벌, 과거 청산은 퇴각하는 군부의 힘이 여전히 강한 곳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내외 안보 영역으로 민간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 통제로 이어지는 않는다(Croissant and Kuehn 2010, 21-61).

군사정부와 군부 후견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군사정부는 군이 공공정책과 엘리트 충원 분야에서 자율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군사정부하에서는 군부가 국가정책을 완전히 통제하고, 각료를 군부 출신으로 채운다. 반면 군부 후견 민주주의는 군부가 민-군 관계의 의사결정 영역에서 군이 민간 정치인들을 일정 정도 감독하는 정치체제이다. 이 체제는 불완전한(incomplete) 또는 결함 있는(defective)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Croissant and Kuehn 2010, 21-61).

〈그림 1〉에서 보자면 C에서 A로 향한 억압을 A에서 C로의 저항이 압도해야 한다. 이때 대중을 동원해 내는 포퓰리즘은 위력적인 저항력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얀마 NLD의 포퓰리즘(populism), 즉 N-포퓰리즘의 경우 무슬림, 특히 로힝야를 불인정하는 차원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동원했다(Khin Zaw Win 2018). 여기에서의 포퓰리즘이란 개성 있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수직적 동원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은 선거 국면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낸다(박은홍 2012). N-포퓰리즘은 사실상 아

〈그림 1〉 프레토리안체제하에서의 군부-시민사회-국제사회의 상호작용



용 산 수 치의 신비주의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에 기인한다. 그녀는 1988년 8888 민주혁명 시기 포용적(inclusive) 포퓰리스트에서 국수주의적(xenophobic) 수사를 활용하는 포퓰리스트로 변모한다(Camroux 2019, 2).

미얀마의 프레토리안체제는 군사정부와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모두 보여주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역시 민주화가 직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LD 정부는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2008년 헌법이 보장한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수용했고, 군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2008년 헌법에 의지해 개혁·개방으로 수호자주의의 변형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히려 N-포퓰리즘이 맛마도의 수호자주의, 즉 T-수호자주의를 능가하자 군은 지난 2월 직접적 지배, 즉 군사정부로의 회귀를 선택했다. T-수호자주의의 원형(prototype)으로의 회귀인 것이다.

〈그림 2〉는 T-수호자주의를 발생론적 관점(genetic approach)에서 도표화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종족 간 갈등에 따른 국내 상황의 불안을 배경

<그림 2> 미얀마 군부의 수호자주의와 반군부 진영 포퓰리즘의 공존/대치(1962-2021)



으로 한 1962년 팻마도의 첫 번째 쿠데타는 어느 정도 대중성(popularity)이 있었지만 군사정부가 정치적·경제적으로 ‘실패 체제(failed regime)’로 전락하면서 대중성이 온전하게 NLD로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1988년 이른바 8888 민주혁명이 결정적 배경이 된다. 군부는 NLD의 압승을 부정한 1990년 5월 이후 NLD의 저항적 포퓰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수호자주의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관제 대중조직 연방단결발전협의회(USDA)를 조직했다. 그렇지만 2010년 11월 총선 승리와 2011년 3월 테인 세인 유사민 간정부의 출범은 USDA의 성과라기보다는 NLD가 불참한 결과였다. NLD가 참여한 2015년 선거와 2020년 선거에서 USDA가 변신한 연방단결발전당(USDP)은 NLD에 연거푸 대패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N-포퓰리즘을 T-수호자주의가 이겨낼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2월 쿠데타는 T-수호자주의가 막다른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의 무모한 파국적 선택이었다. 이때의 ‘파국적 선택’이란 한층 더 심각한 단절(discontinuity)의 위기 국면으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3. 수호자주의의 탄생·진화·위기와 포퓰리즘의 부상과 도전

미얀마 독립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 뜻마도는 이미 정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식민지 해방투쟁 경력이 뜻마도가 정치적 지분을 주장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1947년 헌법에 따라서 1948년 독립 이후 군은 문민통제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내전으로 인해 군부의 영향력이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Bünte 2011, 744). 결정적 계기는 1958년 집권당이자 항일 독립 투쟁의 주역이었던 AFPFL이 분열하면서 헌정 위기를 맞게 되자 우누 총리가 네윈이 이끄는 군부에 일시적으로 행정 권력을 위임했을 때였다.¹⁰⁾ 이때 정국 안정을 위해 들어섰던 네윈의 과도내각(caretaker cabinet)은 미얀마 군부 뜻마도의 ‘깨딘신’, 즉 수호자 논리의 모태가 되었다.¹¹⁾ 1960년 선거 이후 군부가 AFPFL로 권력을 반환했으나 AFPFL이 재분열하면서 정치적 혼돈이 가중되기 시작했는데, 우누 총리가 소수민족들과 이들의 자율성 확대 논의를 하던 중이던 1962년 3월 2일에 군총사령관 네윈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발했다. 쿠데타 명분은 분열 위기에 있는 국가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수호자를 자처한 일단의 정치화된 군부에 의한 쿠데타였다.

10) 1958년에 들어와 버마 독립의 주역 AFPFL은 안정파와 청렴파로 갈라서는 극단적 내분 상황에 직면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28-30).

11) 장준영(2016a)은 ‘깨딘신(ကေတိကစိန်)’, 즉 수호자로서의 뜻마도의 자기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미얀마 정치사의 맥락에서 영문표기 guardian, savoir, unfier를 수호자로 번역해 낼 수 있으며 ‘깨딘신’과 의미상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 군부 쿠데타와 수호자주의의 진화와 위기

1962년 3월 쿠데타 직후 군부는 의회 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로의 전환을 선언했다.¹²⁾ 이와 동시에 헌법, 의회, 정당, 독립노조의 폐지를 공표했다. 또 식민지 시대 민족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의 역사를 소환하면서 인민을 위한 군, 인민의 군, 나아가 국가 통합의 중심 세력으로서의 군을 자처했다(Djiwandono and Cheong 1990, 304-305). 버마식 사회주의 기치하에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추방되었다. 미얀마 군부 뜻마도의 수호자주의가 정책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이 군 최고 지도자인 네윈에게 이양되었고, 내각도 장성들로 채워졌다. 또 군 장성의 통제하에 마을 단위로 행정·안보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의회민주주의와 연방주의는 정치적 불안정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학문 활동은 군사정부의 검열 대상이 되었고 역사교육은 군부 중심으로 재기술했다. 또 모든 사립학교가 폐지되었다. 산업의 국유화와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도 이루어졌다. 쿠데타 직후 네윈 군부 세력은 대학 내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9시로 지시했는데, 1962년 7월 7일 랭군대학교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군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학생회관 건물을 폭파해 버렸다. 1964년 군부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정치 조직들을 불법화하고 정부의

12) 사회주의 성향의 군부 지도자로서 쿠데타로 집권한 예는 페루의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 장군을 들 수 있다. 그는 군부 주도 혁명 정부를 구축하고 농지 개혁, 국가주도 계획경제, 대중 동원을 시도했다(김기현 외 2012).

허가 없이 정치결사체의 조직화를 금하는 국민연대법(National Solidarity Act)을 시행했다(Kyaw Yin Hlaing 2004, 392). “버마에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네윈은 듣고 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네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110).

쿠데타가 일어난 1962년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잠재우면서 혁명평의회 출신 인사들이 중앙위원회(CEC)를 장악한 버마사회주의계 획당(BSPP)이 출범했다. 당시 BSPP는 군 간부 20명을 핵심으로 하는 간부 정당(cadre party)이었다. BSPP는 군의 정치 참여를 위한 포석이었다(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55). 그리고 1974년에 군부 주도 일당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신헌법을 통과시키면서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출범했다.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최고위 의사결정 권한이 군사령부에서 당 중앙위원회로 이동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SPP의 지도부가 전·현직 군 장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BSPP 지도부에서 현직 장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퇴역 장성의 영향력은 유지되었다. 네윈이 BSPP 당총재이자 대통령 직위에 올랐을 때 당 중앙위원회의 75%가 현직 군 장교였지만 1980년대 초 당중앙위원 13명 중 3명만이 현역이고 나머지 9명은 퇴역 장성, 다른 1명은 민간인 출신이었다(Win Min 2010, 106). 내각은 정책 결정 권한이 없었고,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실행했다. 내각에 참여한 군 고위급 인사들은 군복 대신에 장관복을 입었다.

의회도 당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의회는 1970년대 후반까지 전·현직

장성 비율이 대략 60%에 이르렀다. 1974년 헌법은 BSPP 이외의 정당을 불허했다. 독립노조 활동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통제받았다. 이와 동시에 BSPP는 전·현직 군 장교가 이끄는 독자적 민간 대중 조직을 만들었다. 1974년 11월 전 유엔사무총장 우탄트의 국가장을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군부가 승인하지 않자 학생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수 주간 지속되었다. 이때 학생 수천 명이 체포되고 최소 18명이 사망했다(Ray and Giannini 2021). 이후 1988년까지 군부 지배를 위협할 만한 도전은 없었다.

BSPP 정부는 일부 군 고위 간부를 숙청했음에도 불구하고 AFPFL 정부에 비해 응집력이 높았다.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국유화된 경제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유지했다. 반면 민간 경제 집단의 출현은 차단되었다. 이러한 민·군간의 권력 불균형은 군부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Win Min 2010, 106-107).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정치,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가 고립주의 노선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198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미얀마에 1주일 이상 체류할 수 없었다(Aung Zaw et al. 2001, 11).

그러나 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는 BSPP 정부의 경제 관리 실패로 귀결되어 급기야 1987년에 미얀마는 UN에 의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으로 지정되었다.¹³⁾ 고립주의와, 기술 관료가 아닌 군 장교가 주도한 경제 정책의 결과였다. 미얀마는 1978년 이후 비동맹회의로부터도 탈퇴한 상

13) 이 당시 최빈국(LDCs) 명단에는 이미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차드 등이 올라 있었다.

황이었다. 1987년 후반의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학생 주도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에서는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회운동 조직들(SMOs)의 기여가 컸다(Kyaw Yin Hlaing 2004, 389; 아웅 모 저 2007, 267-269).

1988년 8월 만성적 경제실패를 겪던 대중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하면서 다당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6주간이나 군사정부는 통제 능력을 상실했고, 군병력도 퇴각했다. 언론 자유화와 함께 독립노조가 다시 등장했다. 공무원들이 파업에 나섬에 따라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하위급 당원들이 다수 탈퇴하면서 BSPP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단합을 유지했다(Win Min 2010, 107-108).

이른바 8888 민주혁명은 전국적 규모의 시위와 파업의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뜻마도는 1988년 8월 8일 이후 6주 동안 3000명가량을 살해하면서 시위를 진압했다. 소수민족반군(EAOs)을 향하던 총구를 비무장 학생, 승려, 주부,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겨누었다. 이 와중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소마웅 장군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가 출범했다.

1988년 9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 세력은 SLORC를 1997년에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로 바꾸었다. SLORC과 SPDC의 후신인 SPDC는 현역 장교들로만 채워졌다. 군 지도층은 1962년과는 달리 군사평의회인 SLORC를 과도기적 군사정부로 규정하고 대중들의 추가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방하기 위해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군부는 1962년과 동일하게 1988년 이후 성장한 시민사회를 약화

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학생조직, 독립 언론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대학 폐쇄, 사회운동 지도자 체포를 단행했다. 또 헌법을 폐기하고 의회를 해산했다. 1962년과 마찬가지로 행정, 입법, 사법 권력을 SLORC 의장이 장악하도록 했다(Win Min 2010, 108).

SLORC 역시 초기에는 모든 각료들이 현역 장교로 구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역 장교와 민간인 출신이 각료직의 일부를 채웠다. 의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사법부는 군부에 의해 구성되었다. 군의 중앙통제를 위해 군사평의회를 지역 마을 단위까지 설치했다. 그리고 전직 BSPP 당원들로 조직된 국가통합당(NUP: National Unity Party)을 출범시켰다. 이러한 통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27일 총선에서 군부는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에 패배했다. 군부가 편파적으로 지원한 NUP가 총 485개 의석 중 10석을 얻었다. 반면 NLD는 아웅 산 수 치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92개 의석을 차지했다.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마지막 민주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헌법에 기반하여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고 있었다(Dayley and Neher 2013, 81). 그렇지만 군부는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권력 이양을 거부했다.

1993년에 군부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헌법 제정을 위한 국가회의(NC: National Convention)를 띄웠다. 1990년 총선에서 8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NLD에겐 단지 12%의 의석만을 배분했다. 1995년 NLD는 NC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군부는 NC에서 NLD를 배제했고, 1996년에는 NC 활동을 중지시켰다. 군은 헌법 없는 통치를 계속했다. 1995년, 2000년, 2002년에 아웅 산 수 치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으나 군부와 NLD 간에

실질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1988년 이후 군은 또 다른 민주화 시위의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군은 도시의 시위자들과 변방의 무장세력 간의 연대를 우려했다. 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수민족반군(EAOs)과의 휴전협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이들은 휴전을 꺼리는 소수민족반군(EAOs)에 대해서는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대중운동을 조기에 분쇄하기 위해 군의 규모를 증강했다. 1980년대 후반 18만 명이던 병력이 1995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어났고, 병력 규모를 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전례 없는 수준에서 국가기구의 군사화가 진행되었다. 군은 퇴역 장교를 정부 기관의 고위직에 임명했다. 행정부처를 퇴역 장교가 맡게 되면 공무원들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Win Min 2010, 110).

1990년 선거 이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는 군사평의회 SLORC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셴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불사하고 반정부세력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투옥했다. 1991년 12월 군부와 투쟁하고 있는 아웅 산 수 치에게 노벨평화상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웅 산 수 치를 탄압하는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이들이 버려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아웅 산 수 치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국가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게 된다면 더 깊이 참호를 팠다(Dayley and Neher 2013, 81).

반면 군사정부는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시장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경제를 독점화하려 했고, 민간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만들어냈다.¹⁴⁾ 이를테면 탄쇄¹⁵⁾ SPDC 의장 집권 시기에 국영기업을 군 지도부 측근에게 매각하는 처사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이나 기업가정신의 양양보다는 자유화된 시장에 대한 독과점적 통제를 선호했다. 또 군 최고 지도자가 관장하는 무역청을 신설했는데 여기서 발행하는 수출입허가장은 군사업체, 군 가족과 측근들에게만 주어졌다. 또 군은 1990년대 초반에 경제지주회사(UMEH: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와 미얀마경제공사(MEC: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두 개의 대기업을 세웠는데, 이들 기업 역시 군 고위급 장교 휘하에 놓였고, 세금 면제와 특허까지 누렸다(Montesano, Chong and Prajak 2020, 9). UMEH는 최대 국영기업체로서 전쟁성 조달국, 지역사령부, 전·현직 군 장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 대부분의 대규모 외국인투자도 UMEH를 거쳐야 했다. 영업수익을 내는 분야로는 보석, 목재 가공, 의류산업, 식자재 음료 산업, 교통, 무역, 통신, 건설, 은행, 호텔, 관광서비스 등이었다. MEC 역시 방대한 기업으로서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다(Win Min 2010, 111). 군

14)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땃마도는 산하에 기업들을 두고 있었다. 1962-1988년 기간에 땃마도는 사회주의노선에 따라 수익 사업과 거리를 뒤야 했지만 1988년 이후는 다시 기업 분야에 관여하기 시작했다(Montesano, Chong and Prajak 2020, 9).

15) 탄쇄 장군은 1992년 정신건강을 이유로 군최고 지위에서 물러난 소마웅 장군의 뒤를 이었다.

-재력 연결망(sword-kyat network)이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 개방 이전까지 뜻마도 지도자들은 기술 관료, 정치인, 지식인, 사회·경제 엘리트들을 국가적 사안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소수의 군부 밖 인사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독립적인 정치기반이나 지지층을 갖지 못했다. 다른 한편 판쉐 SPDC 의장은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한 재난 직후 국제 사회가 제안한 외국인 구호 요원들의 활동조차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보았다(Dayley and Neher 2013, 95).

그는 친군부 대중조직인 연방단결발전협의회(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민주화 시위를 차단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군사정부 시기 골카르(Golkar)의 대중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새로운 친군부정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USDA는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을 회유하거나 강제했고, 2400만 회원을 두고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회원들에게는 독점적 사업, 무료 교육, 군사훈련의 기회를 부여했다. USDA는 계획적으로 아웅 산 수 치의 차량을 습격하기도 했는데, 특히 2003년에는 디페인 지역에서 그녀의 차량 행렬을 공격해서 공식적으로는 12명이 사망했다. 이때 아웅 산 수 치는 재차 가택연금되었다. 또 NLD가 NC를 보이콧하고 나서자 USDA는 NC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그리고 USDA를 이끄는 고위 간부들과 같은 특정 회원들에게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후보로 될 수 있도록 리더십 훈련, 경영, 정치, 경제, 사회사업, 컴퓨터 기능 등을 교육했다(Win Min 2010, 111). 2010년 총선을 앞두고 USDA는 연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으

로 변신했다.

2) 수호자주의의 규율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도전

군 내부에서는 NLD 지도자 아웅 산 수 치와 군부에 비판적인 서방 국가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각각 서열2위와 3위에 있던 마웅에 장군과 킨눈 장군은 2003년 아웅 산 수 치 차량행렬 습격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 습격은 탄쇄 SPDC 의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3년 아웅 산 수 치 테러 시도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군사평의회 SPDC는 군 정보국장을 역임한 킨눈을 총리로 임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일정표 없는 ‘규율 민주주의를 향한 7단계 로드맵(seven-step roadmap to disciplined democracy)’을 공표했다. 킨눈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NLD의 NC로의 복귀를 위한 협상을 구상하고 이를 로드맵의 1단계로 설정했다. 국제사회는 그를 반정부세력과 가까이 일할 의지가 있는 실용주의자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결국 탄쇄는 킨눈이 시도한 NLD와의 대화를 거부했다. 이를 계기로 정보국이 얼마만큼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전투부대와 정보부대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 갈등은 2004년 킨눈 숙청과 정보국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2005년 킨눈은 4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가택 연금으로 대체되었다. 많은 정보국 요원들은 20년에서부터 200년에 이르기까지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Win Min 2010, 112).

수호자로 군림하고 있던 탄쇄 장군은 2011년 1월 4일 미얀마 독립 63

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신식민주의 세력들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종이 되길 강요하고 있다고 당시 제재(sanction)를 가하고 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규율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한 2008년 헌법을 강행 처리한 탓마도 최고 지도자의 의식 속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트라우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판쉐 장군의 메시지를 기사화한 국영신문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New Light of Myanmar)』는 수도 네피도¹⁶⁾에 있는 세 명의 전사왕(warrior kings) 동상 사진을 같이 게재하면서 과거 이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수호했듯이 강력한 군만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Wai Moe 2010; 슈타인버그 2011, 54-57).

이렇듯 판쉐는 오래된 반식민주의 이념을 동원하면서 1990년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불식시키고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신헌법이 보장하는 군부 후견 민주주의, 즉 규율 민주주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도로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을 밀고 나갔다. 2004년 NC가 NLD의 참여 없이 재개되었고, 군사정부는 NC 의석의 10%를 휴전에 동참한 소수 민족에게 할당했다. 비로소 200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2008년 5월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난 1주일 뒤에 군사정부는 예정대로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했다. 군은 병력을 재난 구호가 아닌 투표소를 지키는 데 투입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헌법은 92%의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하지만 NLD 등 민주진영은 국민투표가 협박과 투표 조작 속

16) 군부가 지은 네피도란 수도명은 왕도(王都)라는 뜻이다.

에 진행되었다고 비난했다.

주목할 것은 1988년 이후 민주화 시위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사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에 ‘사프론 혁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혁명은 1988년 이후 첫대규모 시위로 시작되었다. ‘사프론 혁명’은 정부가 급작스럽게 연료보조금을 폐지하자 가스가격이 급등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88세대’ 학생 집단이 이 시위를 주도했으나 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그러자 승려들이 반정부 시위의 주역이 되었다. 승려들은 양곤과 여타 도시에서 평화적 시위를 이끌었다. 이들은 불경을 읊조리면서 민주화 세력과의 대화, 정치범 석방, 효과적인 빈곤 정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승려들과 시민들을 구타하고, 수천 명을 체포하고 최소한 31명의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시위를 진압했다. 동시에 군부를 지지하는 USDA 주도 대중집회를 전국적으로 열었다(Win Min 2010, 114).

군사정부는 유혈 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공표했다. 그리고 연락 장관(liaison minister)을 임명하여 몇 차례에 걸쳐 아웅 산 수 치를 만나도록 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이 수그러들자 이를 중단했다. 군부는 다시 시위를 주도했던 옛 학생운동 지도자들과 승려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 2010년 총선이 다가오자 NLD는 총선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걸었다. 아웅 산 수 치를 포함한 정치범들의 무조건적 석방, 2008년 헌법 재검토,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가 그것이었다. 2009년 9월 유엔총회 직전 군사정부는 2010년 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100여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다. 하지만 정치활동가들은 계속 체포되었고, 이미 2000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었다. 2009년 10월 아웅 산 수 치가 판쉐 최고 지도자에게 대(對) 미얀마 경제제재 사안을 비롯해 군사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009년 11월 아웅 산 수 치는 타국의 외교관을 접견할 수 있었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유화정책 시늉을 보이면서도 2009년 8월 꼬깡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의 휴전 당사자인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을 공격했다. 공격의 명분은 미얀마 군사령부 휘하의 국경수비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군사정부의 제안에 이들이 소극적인데 있었다. 와주연합군(UWSA), 까친독립군(KIA)과 같은 대규모 반군집단들은 이와 같은 미얀마군의 제안을 이미 거절했다(Win Min 2010, 115).

2011년 NLD 본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당대표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아웅 산 수 치는 “진정한 독립은 진정한 인권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맞마도 최고 지도자 판쉐는 서구 강대국들과 같은 ‘신식민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비난했다(Wai Moe 2010). 신식민주의에 대한 편집증은 “일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향해 민주화, 인권, 인도주의를 핑계로 약소국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기술한 2015년 국방백서에서도 표현되었다(Nay Yan Oo 2020, 44).

수호자주의의 규율 민주주의, 다시 말해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합법화한 2008년 헌법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군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의 특권을 보장하는 여러 법 조항들을 담았다. 무엇보다

다 2008년 헌법은 군이 국가와 정치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군 통수권자로 군림한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군 총사령관이 민간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군 통수권자이다. 그는 군 전체를 관장하는 절대권력자이다. 국방과 관련된 헌법 7장 339조는 군이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책임(safeguarding)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경찰력이 국내 안보 문제를 다루는데 2008년 헌법은 국내 안보 문제를 이유로 군이 독자적으로 시위에 대응하고 법과 질서를 관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25%도 현역 고위급 장교 중에서 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¹⁷⁾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함을, 대통령이 정치, 행정,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도 능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내무, 국방, 국경부장관을 군 총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 주도의 국방안보회의(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가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군 독자의 법원 운영, MEHL¹⁸⁾과 MEC 같은 군사업체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17) 2010년 11월 총선으로 탄생한 의회에서 군부는 무투표로 의석의 25%를 차지했다. 총 388명의 의원 중 준장이 1명, 대령 19명, 소령과 대위가 가장 많은 368명이었다(장용운 2013, 50).

18) MEHL의 전신은 1990년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미얀마경제지주회사(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UMEH 혹은 UMEHL)이고, NLD 정부가 출범하던 2016년부터 기업명 영어표기에서 Union을 빼서 MEHL로 표기된다. 미국은 테인세인 정부하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풀 때도 MEHL이 군부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지속했다.

이렇듯 2008년 헌법은 규율민주주의로 호명되는 군부 후견 민주주의의 안정화 차원에서 문민 통치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군의 자율성과 정치, 경제 분야의 개입을 최대한 보장했다.

3) 수호자주의의 규율 민주주의하에서의 포퓰리즘과의 권력 공유, 그리고 파국적 선택

2011년 3월 30일 민간정부를 자부하는 테인 세인 체제가 출범했다. 군부 내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테인 세인은 그해 8월 19일 NLD 지도자 아웅 산 수 치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들 대화의 성과는 2개월 뒤 일련의 정치개혁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수백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고, 노동법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언론 검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NLD가 치열한 내부 토론 끝에 기존의 정치참여 보이콧 노선을 철회했다. 테인 세인 정부는 NLD가 정당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했다.

변화는 2012년 새해 벽두에도 이어졌다. 2012년 1월에 테인 세인 정부는 60여 년 동안 반군 활동을 해오던 카렌민족연합(KNU: Karen National Union)과 휴전에 합의했고 산, 까친 지역과도 휴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¹⁹⁾ 또 65년형을 선고받았던 민 꼬 나잉 등 과거 학생운동 지도자

19) 2015년에 테인 세인 정부는 16개 소수민족반군이 참여한 거국휴전협정(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을 이끌어냈다(Soe Thane 2017, 48).

들과 2007년 샤프란 혁명의 주역인 어신 감비라, 산족 지도자 쿤통우 등을 석방했다. 이어 2012년 3월에는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아웅 산 수 치가 사상 처음으로 국영TV를 통해 법치, 인권 존중,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마침내 4월 1일 보궐선거에서 아웅 산 수 치가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고 NLD가 44석 중 43석을 획득했다. 물론 이 선거는 보궐선거라는 제한성이 있었지만 군사정부에서 제한적 수준의 군부 후견 민주주의를 거쳐 전형적 군부 후견 민주주의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였다.

미얀마에서 직접적인 군부 통치, 즉 군사정부는 네윈 장군 주도의 쿠데타가 일어난 1962년부터 땃마도에 의해 허용된 군부 후견 민주주의인 테인 세인 체제 출범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군부 후견 민주주의하에서 2008년 헌법에 따라 군사력과 경찰행정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땃마도는 11월 8일 총선이 부정선거라 주장하면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1년 안에 새로운 선거를 치르겠다고 애매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군사평의회 의장 민 아웅 흘라잉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6개월 만에 스스로 총리가 되어 군부의 비상통치 기간을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2023년 8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군부 쿠데타와 같은 정치위기는 선거 이전, 선거 기간, 혹은 선거 이후에 매우 자주 발발한다(Kraus 2020, 30). 지난 2월 쿠데타 발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다. 우선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가 2015년과 2020년 연거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막후에서의 군의 정치적 지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2015년 총선 이후 NLD

는 2018년 헌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Ebbighausen 2021). 이렇듯 민심이 NLD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부터 규율 민주주의 모델은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23일에는 연방의회 내에 설치된 NLD 주도의 헌법개정합동 위원회가 군부의 정치 개입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2개의 개헌법안을 의원 351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長田紀之 2021, 414). 사실 뜻밖에도 그들이 만든 2008년 헌법으로 상원과 하원 의석의 25퍼센트를 군부에 할애하는 조항을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2021년 7월 은퇴해야 하고, 그의 후임자는 민간 대통령이 포함된 국방안보회의(NDSC)에서 협의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민 아웅 흘라잉이 2021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NLD가 오히려 2020년 총선에서 2015년 총선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다. 상원에서 138석, 하원에서 258석, 지방의회에서 524석, 총 920석을 얻었는데 이는 5년 전 총선 때보다 33석이 더 많았다. 반면 군부정당 USDP는 상원 7석, 하원 26석, 지방의회 38석 총 71석으로 5년 전보다 45석이 줄었다.²⁰⁾

2020년 11월 8일 총선거는 팬데믹과 분쟁 격화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실시되었다. 하지만 분쟁 상황을 이유로 라카인주, 산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선거가 실시된 지역은 상원에서 전체

20) 2015년과 2020년 총선 결과 비교는 장준영(2016b)과 홍문숙(2021)을 참고하였다.

168개 선거구 중 161개, 하원에서 전체 330개 선거구 중 315개뿐이었고, 이는 현행 헌법하에 치러진 세 번의 총선거 중 가장 적은 수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LD는 상·하 양원에서 압승했고 제2당인 USDP는 상·하 양원 총 의석수의 6.9%만을 차지하는 데 머물렀다(長田紀之 2021, 415). USDP는 군부친화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홍문숙 2021, 130).

NLD 승리의 최대 요인은, 포퓰리스트로서의 아웅 산 수 치의 절대적인 카리스마였다. 로힝야 문제를 계기로 아웅 산 수 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실추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국외의 비판으로부터 몸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엄마’로서 인기, 즉 포퓰리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또 군이 선거 직전에 정치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언을 강하게 피력한 것도 군사정부로의 회귀를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NLD에 투표하도록 자극하는 포퓰리즘의 정치였다. 이외에도 NLD가 과거 4년 반 사이 여당으로서 당세를 키웠던 것, 국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등장하지 못한 것, 감염증 대책에 따른 선거운동의 제한이 기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등이 선거 국면에서 NLD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長田紀之 2021, 415).

반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75세의 아웅 산 수 치는 군부 탄압에 맞서 싸우고 구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도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라카인지역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을 묵인한 아웅 산 수 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은 컸다(Lee 2014, 331). 유엔 인권조사관 토마스 앤드루스(Thomas Andrews)는 100만 명가량의 라카인주 무슬림 로힝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선거의 불공정성을 지적했

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방글라데시에 체류 중인 14개 로힝야 난민 단체들은 그들에게 총선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공개서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Strangio 2020). 이러한 상황은 아웅 산 수 치로 하여금 뉘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급증을 갖도록 했을 수 있다. 정치화된 군부를 병영으로 복귀시키려고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미얀마의 정치 시스템에서 ‘국가 안의 국가’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군부의 인내심을 자극했을 수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는 NLD와 아웅 산 수 치가 재집권하는 것을 거부하는 군부의 정치적 군사행동이었다. 군사정부로의 회귀를 시도한 땃마도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아웅 산 수 치를 로힝야 인종청소의 책임자로 비난하기까지 했지만 미얀마 국민은 여전히 그녀를 민주주의의 아이콘으로 여기고 있음을 간과했고, 또 미얀마 국민이 국가 미래의 불안정성보다는 지속성과 안정을 선호하는 차원에서 그녀의 지도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

반면 민 아웅 홀라잉 군총사령관과 그의 측근들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²¹⁾ 동시에 NLD의 압승은 미얀마 군장성들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미칠 것으로도 보였다. 민 아웅 홀라잉은 MEHL, MEC 두 개의 군부 대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민 아웅 홀라잉 가족들 역시 그들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있다. 은퇴한 장군도

21) 대표적으로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면서 민 아웅 홀라잉 군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IMM: 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현역 장군들과 비슷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요컨대 지난 2월 1일 쿠데타는 새로이 출범할 민주 정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 지도부의 공포감에서 비롯되었다.²²⁾ 이들의 행동은 30년 전 1990년 5월 총선이 군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의 압승으로 끝나자 ‘보복 정치(politics of prosecute-purnish)’를 우려해 NLD로의 권력 이양을 거부한 당시 군부 지도자들 심리의 판박이(replication)이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의 NLD의 쾌거가 군 수뇌부로 하여금 군부의 특권을 보장하는 2008년 헌법조차 안정적인 방어기제일 수 없다고 여기도록 한 것이다 (Tham 2021). 2월 1일 쿠데타는 30년 전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의 포퓰리즘에 겁먹은 거부 쿠데타(veto coup)²³⁾의 재현이었다.

이에 군부에 대항하는 CRPH는 2008년 헌법 폐기와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헌법(Federal Democracy Constitution) 제정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헌법 제정 과정에는 2020년 11월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 제정당, CDM, 총파업 위원회(GSC),²⁴⁾ 여성 및 청년조직들을 포함한 시민사회조직(CSOs), 소수민

22) 민 아웅 흘라잉은 정치 개방이 시작된 2011년에 군총사령관이 되었다. 2016년 그는 군 예편을 했어야 하나 임기를 5년 연장함으로써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기에 이번 쿠데타의 동기를 민 아웅 흘라잉의 사욕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2019년 그는 로HING아족과 다른 소수 종족들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부터는 그가 관장하는 기업들과 성인인 그의 자식 2명이 추가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Tham 2021).

23) 거부 쿠데타(veto coup)는 군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동원과 대규모 참여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쿠데타이다.

24) 총파업위원회(GSC)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시민·정당조직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로HING아

족반군(EAOs) 등이 참여하고 독재 타도와 명실상부한 연방 민주주의(Federal Democratic Union) 구축을 위한 제헌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 소집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9월 7일 NUG는 땃마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소수 민족반군(EAOs)과의 연대의 끈은 여전히 불안하다. NUG의 행정력,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도 취약하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운동인 CDM은 군사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의 행정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²⁵⁾ 특히 CDM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파업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금융기관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지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달러와 금 가치가 폭등하고 있다. 1987년과 같은 화폐개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철수하거나 철수를 준비하는 외국인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감염병 확대에 대한 무능한 방역대책과 CDM 소속 교사들의 파업으로 교육 부문도 황폐화되었다. 무장조직인 PDF의 공세도 확대되고 있다.²⁶⁾ 현재 PDF는 전국가에 걸쳐 수백 개가 있으며, 군사적 표적들에 대한 게릴라 전투와 치고 빠지기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정부 NUG는 현 군사정부와 싸우기 위해 시민 저항 세력과 소수민족반군(EAOs) 사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령부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는 NUG

단체도 참여하고 있으며 88세대 새사회민주당(DPNS) 대표 아웅 모 저가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25) 묘헤인 NUG 한국대표부 자문위원과의 인터뷰(2021/4/13; 2021/5/4; 2021/5/12; 2021/5/29; 2021/11/8).

26) 얀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와의 인터뷰(2021/5/29; 2021/6/21; 2021/10/21).

의 전쟁 선포가 있는 지 2개월이 지나 이행되는 것으로 사령부의 명칭은 중앙지휘조정위원회(C3C: Central Command and Coordination Committee)이다(The Irrawaddy 2021/10/19). 이렇듯 ‘봄의 혁명’은 가장 큰 반정부운동이었지만 6주 만에 진압된 1988년 8888 민주혁명의 규모와 지속성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세안(ASEAN)은 10월에 열린 정상회의에 민아웅 흘라잉의 참여를 배제했다.

4. 결론

미얀마 군부 깃마도는 미얀마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웅 산이 암살되던 1947년 이후 줄곧 무력을 독점했고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군림했다. 1962년 쿠데타의 주역들은 미얀마 군인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피를 흘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버마 의회제도는 매우 불안정하고 부패한 정치가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식민지 지배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독립 이후 국가가 안정을 찾도록 싸웠기 때문에 더 유능한 지도 집단이라고 자부했다.

이렇듯 1962년 이후 깃마도는 국민과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하였다. 1988년 깃마도는 안정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수천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쿠데타를 통해 출범한 군사평의회(명칭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인 것에서도 이들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1990년 5월 총선이 국제사회의 선거 감시도 없는 상태에서, 또 NLD 지도자 아웅 산 수

치가 감금된 상태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NLD의 압승, 군부 후원 정당 NUP의 대패로 끝났다. 군부는 NLD, 특히 아웅 산 수 치가 급속도로 구축해 낸 포퓰리즘의 위력을 완전히 잘못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자 군부는 당시 총선이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였을 뿐이며 헌법 제정이 있고 나서 다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제1당에 권력을 이양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저항하는 NLD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이후 땃마도가 구성한 것이 제헌의회 격인 국가회의(NC)이다. NLD의 참여 거부 속에서 NC의 활동은 지지부진하였는데 마침내 군부 관리하에서 이들에 의해 신헌법이 기초되었고, 이것이 2008년에 국민투표로 통과되었다. 이는 1974년 공포 분위기 하에서 BSPP 일당제를 합법화한 헌법을 통과시킨 것과 유사했다. 다만 2008년 헌법이 1974년 헌법과 다른 점은 다당제를 보장하면서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군부의 지분을 확보해 놓는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이다. 2008년 헌법은 땃마도 수호자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군사정부로부터 군부 후견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보장한 제도적 장치였다. NLD는 이러한 헌법하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선거에서 승리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서 2008년 헌법을 폐기한다는 전략에 합의하면서 NLD는 선거에 참여하였고 2012년 보궐선거,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군부는 NLD의 불참 속에서 치러진 2010년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어진 두 번의 총선에서 완패했고 이는 땃마도 지도부에 수호자주의의 또 다른 제도적 장치인 규율민주주의를 보장한 2008

년 헌법이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했다.

2008년 헌법의 지지를 받으며 ‘규율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군부 후견 민주주의는 기대 이상의 개방 국면을 열었다. 2011년 테인 세인 유사 민간 정부의 출범이 그것이다. 1962년 땃마도의 수호자주의, 즉 T-수호자주의의 출범 이래 볼 수 없었던 정치 개방과 경제 개방 시대가 열렸다. 친군부와 반군부로 나뉘어 있던 국제사회도 하나가 되어 이러한 변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2011년 테인 세인 정부하에서의 획기적인 변화, 2016년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 정부의 출범은 수호자주의를 합법화한 2008년 헌법이 설정한 ‘규율’ 안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미얀마 국민들은 땃마도의 수호자주의 즉, T-수호자주의를 상징하는 2008년 헌법에 대한 개정을 약속하는 NLD의 포폴리즘, 즉 N-포폴리즘에 몰표를 주었다. 그러자 급기야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어떠한 설득력도 없는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2011년 테인 세인 정부 시기부터 진행된 개혁·개방 국면하에서 미얀마의 시민사회는 활력을 얻었고 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단단한 진지를 쌓았다. 그것은 1988년 T-수호자주의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N-포폴리즘의 정치적 효과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NLD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었던 미얀마 시민사회는 참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로힝야 위기를 통해 N-포폴리즘의 국수성을 목도했다. 이른바 N-포폴리즘은 일부 소수민족들에게도 반감과 실망을 샀다. 그러기에 2021년 쿠데타를 계기로 CDM, 총파업위원회(GSC), 시민방위군(PDF)으로 표상되는 미얀마 시민사회는 N-포폴리즘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08년 헌법

을 폐기하고, 로힝야를 포함해서 소수민족을 끌어안는 명실상부한 연방헌법과 연방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대항 정부(pararell civilian government) NUG가 출범했다.

반면 6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된 T-수호자주의는 파국적 상황을 맞았다. 이들은 사실상 이전과 같은 고립주의, 사회주의로 돌아갈 수도 없다.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조차도 파산 직전이다. 미얀마 군부와 불화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조차도 마냥 뜻밖도의 무모함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민 아웅 흘라잉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대한 아세안(ASEAN)의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국내적으로는 군부 후견 민주주의하에서의 뜻밖도에 대한 구슬리기(appeasement), 견제(counterbalancing)와 같은 점진적 방식의 문민 통제의 효과가 오히려 쿠데타와 군사정부로의 회귀로 표현되자 반군부 민주 진영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얀마 군부가 예상하지 못한(miscalculation) 규모의 반군부 저항에 직면함으로써 T-수호자주의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다~~

참고문헌

김기현 외. 2012. 『중남미 엘리트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략 지역심층연구 12-15.

- 박은홍. 2012. “포퓰리즘의 아시아적 변형: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모델의 적용.” 『경제와 사회』.
- _____. 2015. “탈식민체제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식민성: 수카르노와 네윈 시기의 혁명노선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하반기(통권 28호).
- 슈타인버그, 데이비드. 2011.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 장준영 역. 높이깊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버마현대사: 버마식 사회주의와 버마 민중항쟁』. 소나무.
- 아용 모 저. 2007. “버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사회운동의 중요성.” 조희연·박은홍 편. 『동아시아와 한국: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장용운. 2013. 『미얀마 군부 ‘뺏마도’』. 양서각.
- 장준영. 2016a. “미얀마 민간정부에서 쿠데타 가능성과 그 조건.” 『글로벌정치연구』 제9권 1호.
- _____. 2016b. “2015년 미얀마 총선과 정치변동: 선거의 민주화와 불확실한 미래.” 『동남아시아연구』 제26권 1호.
- 홍문숙. 2021. “미얀마 2020: 미얀마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동남아시아연구』 제31권 1호.
- Aung Zaw et al. 2001. “Challenges to Democratization in Burma: Perspectives on Multilateral and Bilateral Responses.” *International IDEA*.
- Berger, Mark T. 2004. “Decolonizing Southeast Asia: Nationalism, Revolution and the Cold War.” Mark Beeson e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N.Y.: Palgrave.
- Bünthe, Marco. 2011. “Burma’s Transition to Disciplined Democracy: Abdication or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 Rule.” GIGA WP 177/2011.
- Bünthe, Marco. 2014. “Burma’s Transition to Qusi-Military Rule: From Rulers to Guardians.” *Armed Forces&Society*(October).
- Camroux, David Frederic. 2019. “Southeast Asia’s Leaders: Populists, Demagogues or Something Else?” Halshs-03151034.
- Croissant, Aurel and David Kuehn. 2010.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nd

- Democracy: Conceptu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Chambers and Aurel Croissant eds. *Democracy under Stress*. Friedrich Ebert Stiftung.
- Dayley, Robert and Clark D. Neher. 2013.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Boulder: Wesview Press.
- Djiwandono, J. Soedjati and Yong Mun Cheong. 1990. *Soldiers and Stabili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 Ebbighausen, Rodion. 2021. “Myanmar’s Military: A State within a State.” <https://www.dw.com/en/myanmar-military-state/a-56545673>
- Huntington, S.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in Zaw Win. 2018. “How Populism directed against Minorities is used to prop up Myanmar’s ‘Democratic Revival?’” [https://www.opendemocracy.net/en/how-populism-directed-against-minorities-is-used-to-prop-up-myanmar-s-democratic-reviva/\(2021.9.19 검색\)](https://www.opendemocracy.net/en/how-populism-directed-against-minorities-is-used-to-prop-up-myanmar-s-democratic-reviva/(2021.9.19%20검색)).
- Kraus, J. 2020. “Early Warning Signals of Military Coups.” *Obrana a Strategie* no.1, 25-38.
- Kyaw Yin Hlaing. 2004. “Burma: Civil Society Skirting Regime Rules.” Muthia Alagappa ed.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Ronan. 2014. “A Politician, Not an Icon: Aung San Suu Kyi’s Silence on Muslim Rohingya.” *Islam and Christian-Muslim Relations*, vol.25. no.3.
- Miliband, Ralph. 1995. *Socialism for a Sceptical Age*. verso.
- Montesano, Michael J, Terence Chong, and Prajak Kongkirati. 2020. “Introduction: Two Mainland Southeast Asian Milita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Michael J. Montesano, Terence Chong, and Prajak Kongkirati, eds. *Praetorians, Profiteers or Professionals? Studies on the Militaries of Myanmar*

- and Thailand*. 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 Muthia Alagappa. 2004. "Introductio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Change in Asi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ya Maung. 1992. *Totalitarianism in Burma*. New York: Paragon House. 3.
- Nan Yan Oo. 2020. "A New Tatmadaw with Old Characteristics." in Michael J. Montesano, Terence Chong, and Prajak Kongkirati, eds. *Praetorians, Profiteers or Professionals?: Studies on the Militaries of Myanmar and Thailand*. 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 Ray, Emily and Tyler Giannini. 2021. "Beyond the Coup in Myanmar: Echoes of the Past, Crises of the Moment, Visions of the Future." *Just Security*. April 26.
- Soe Thane. 2017. *Myanmar's Transformation and U Thein Sein: An Insider's Account*. Yangon: Myanmar Times Press.
- Stepan, Alfred. 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rangio, Sebastian, 2020. "Myanmar Election Will Fail to Meet Proper Standards: UN." *The Diplomat*(September 24).
- Tanvir, Muhammad Yad and Arif, Shahbaz. 2014. "Praetorianism in a case of Exploding Mangoes: A Critical Analysis." *Research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4 no.19.
- Tham, Davina. 2021. "100 days of the Myanmar coup: Why the military seized control and what happens next." *CNA*.(5/11).
- Wai Moe. 2010. "Junta Media warns of Neo-Colonialist Dangers." *Irrawaddy*(12/30).
- Win Min. 2010. "Under an Iron Heel: Civil-Military Relations in Burma/Myanmar." Paul Chambers and Aurel Croissant eds. *Democracy under Stress*. Bangkok: Friedrich Ebert Stiftung.
- Wolf, Siegfried O. and Seth Kane. 2010. "Democratic Ambitions under Praetorian Stress: Civil-Military Relations in Pakistan." Paul Chambers and Aurel Croissant eds. *Democracy under Stress*. Bangkok: Friedrich Ebert Stiftung.

長田紀之. 2021. “感染症流行・紛争擴大下の総選で國民民主聯盟がふたたび壓勝,” 『アジア動向年報』. アジア經濟研究所.

〈기타 인터넷 자료〉

The Irrawaddy. 2021/09/13. “Over 80 Myanmar Military-Owned Telecom Towers Destroyed Nationwide.”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over-80-myanmar-military-owned-telecom-towers-destroyed-nationwide.html>.

The Irrawaddy. 2021/10/19. “Myanmar Civilian Government Forms Military Command Structure” <https://www.irrawaddy.com/news/burma/myanmar-civilian-government-forms-military-command-structure.html>

〈인터뷰〉

마웅저 따비에(미얀마 양곤 소재) 대표(2021/7/8; 2021/9/8; 2021/11/17).

안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2021/9/8; 2021/9/14; 2021/10/21).

묘헤인 미얀마독재타도위원회(서울소재) 회원(2021/4/13; 2021/5/4; 2021/5/12; 2021/5/29; 2021/11/8).

웨노에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서울소재)회원(2021/4/21; 2021/6/17; 2021/10/20).

Abstract

Myanmar's Spring Revolution

The Narrative of the Tatmadaw's Pathway to the Collapse of Guardianship

Park, Eunhong

Sungkonghoe University, Professor

The Myanmar Armed Forces, also known as the Tatmadaw, prides in the fact that its history is older than that of the state and voluntarily plays the role as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people of Myanmar. The Tatmadaw's motto, "One blood, one voice, one command,"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armed forces. The idea of guardianship formed from this historical background is not completely irrelevant to the Tatmadaw's intransigence. The Tatmadaw exhibits an almost paranoid neocolonialism complex, continuously placing the need for security above all else. As such, it opposes the dissolution of the Union and believes in solidifying national sovereignty.

The February 1 coup can be seen as the Tatmadaw's reckless attempt to revert back to the state of isolation before the Thein Sein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such as political chaos or even an economic meltdown. It also revealed the Tatmadaw's sense of crisis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brought by the populism of the NLD led by Aung San Suu Kyi. As the Tatmadaw's guardianship lost both its moral and political assets, the Tatmadaw chose to 'guard' its privilege as a state within a state in a violent manner by mobilizing the 2008 constitution and the state apparatus of repression. In other words, the Tatmadaw decided to maintain its status as 'kedinsin (guardian),' which imply the reversion from democracy under military tutelage, where political power is shared by the civilians and the military, to full military rule. This reversion signify the retreat to a

coercive military regime. This paper is a narrative following the trajectories of the creation, evolution, transformation, and destruction of guardianship under praetorianism in Myanmar after the 1962 coup.

■ **Keywords:** NLD, Tatmadaw, Populism, Guardianship, Praetorianism

투고: 2021.9.29. 심사: 2021.10.14. 확정: 2021.11.10.